

농어촌지역 직장인의 음주실태

양승희*, 김지희**

*신흥대학교 간호학과, **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e-mail:kjh1962@hanmail.net

Drinking Behaviors of Employees in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Seung-Hee Yang*, Jee-Hee Kim**

*Department of Nursing, Shinheung College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촌지역의 음주문제 관련 상담센터, 사업장 중심의 절주 프로그램이나 치료 서비스가 취약한 형편이어서 농어촌 지역 직장인의 음주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남녀 직장인 53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설문에 동의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512부였으며 이중 부실하게 응답한 12명의 자료를 제외한 50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07년 6월 12일부터 2007년 8월 25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의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1.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음주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인식의 평균은 2.93, 부정적 인식의 평균은 3.18로 나타났다.
 2. 음주행태에서 음주경험여부는 현재 음주자가 79.7%로 가장 많았고, 비음주자 13.1%, 과거 음주자 7.2%로 나타났다. 음주빈도는 음주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월 2-4회 마시는 경우'가 38.2%로 가장 많았고, 평소 음주량은 '소주 10잔 이상'이 34.6%로 많았으며 '소주 3잔 이상'인 경우가 전체 대상자의 92.2%를 차지하였다.
 3. 대상자의 문제음주 정도 및 특성은 전체 대상자 중 CAGE를 통해 선별된 알코올의존자(4개 문항 중 2개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하면 알코올 의존으로 규정)의 비율이 96명(25.1%)이었고, AUDIT를 통해 선별된 문제성 음주자(8점 이상)의 비율은 241명(64.8%)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음주로 인한 질병은 위장계 질환이 31.3%로 가장 많았다.
-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농어촌지역 직장인의 음주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산업체 중심의 절주사업이 필요하며 농어촌 직장인 중 문제음주자 및 알코올 의존자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한 알코올중독 예방 교육 및 진단 치료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1. 서론

우리나라 직장 근로자 4,23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83.5%의 직장인이 1주에 1번 이상 음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4명 중 1명이 10번의 술 자리에서 3번 이상 과음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삼성경제연구소, 2004). 또한 이러한 음주문제로 직장인의 61.5% 이상이 직장에서 조퇴, 근무태만, 직장동료들과 다툼, 결근 등 직장생활에서의 문제를 한 가지 이상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진기남과 한동우, 1998).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음주율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 농어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음주문제 관련 상담센터, 사업장 중심의 절주 프로그램이나 치료 서비스가 취약한 형편이어서 농어촌 지역 직장인의 음주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직장인의 음주에 관한 연구로는 주로 대도시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음주 실태나 도시 사업장 중심의 절주사업에 관한 연구가 소수 보고되었으나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농어촌 지역 직장인의 음주문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농어촌지역 직장인의 음주인식,

음주행태, 술 값 지출, 음주로 인한 질병, 문제음주 정도 등의 음주실태를 파악하여 농어촌 산업체 근로자의 음주문제에 대한 예방, 치료 및 재활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음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음주행태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문제음주 정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음주로 인한 질병을 파악한다.
5. 대상자의 1년간 술 값 지출액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남녀 직장인 5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동의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512부였으며 이중 부실하게 응답한 12명의 자료를 제외한 50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2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2007년 6월 12일부터 2007년 8월 25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의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2.3. 조사도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교육정도, 직업, 종교, 월수입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음주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한국 음주문화연구센터(2001)에서 사용한 도구를 알코올전문가 및 간호학 교수 3인의 자문을 얻어 본 연구내용에 맞게 수정한 후 본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 4문항, 부정적 인식 4문항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식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음주행태 중 음주경험은 현재 음주자, 과거 음주자, 비음주자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음주빈도, 평소 음주량, 개인이 경험한 음주의 빈도와 양, 알코올의존증

상, 음주로 인한 문제정도는 음주 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지난 1년간 음주행태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에서 음주문제의 위험성이 있는 성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개발한 알코올사용장애 선별도구 AUDIT(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으로 측정하였으며, 음주경험은 현재 음주자, 과거음주자, 비음주자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문제음주는 Ewing., A(1984)이 개발한 음주문제 선별검사(CAGE) 4문항,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음주문제 선별검사 도구 CAGE(Cut down, Annoyed, Guilty, Eye opener)는 금주에 대한 생각, 주위 사람들의 비난, 음주에 대한 죄책감, 해장술 경험 여부에 관한 4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예'로 응답한 경우 1점,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는 0점으로 전체 4문항 중에 2문항 이상의 문항에 '예'로 응답하면 알코올 의존으로 선별된다.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 도구 AUDIT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40점까지이며 8점 이상인 경우 문제음주자로 선별된다.

음주로 인한 질병은 위장관계, 간, 신경계, 근육계,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술값 지출액은 1년간 술값으로 지출한 총 금액을 만원 단위로 조사하여 직업별로 분석하였다.

2.4.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10.1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음주인식은 평균점수, 음주행태와 문제음주 정도, 음주로 인한 질병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1년간 술값 총 지출액은 평균을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남자가 66.6%(330명), 여자가 34.0%(170명)이었으며, 대상자의 연령은 40대가 26.5%로 가장 많고 다음이 30대(25.3%), 20대(20.3%), 50대(19.9%), 60대 이상(8.0%) 순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60.7%, 미혼이 30.8%, 이혼, 별거 및 사별이 8.5%이었다. 교육정도는 고졸이 50.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문대졸 22.0%, 대졸이상 16.3%, 중졸이하 11.6% 순이었다. 직업은 사무기술직에 종사

하는 대상자가 3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영업 16.8%, 판매서비스직 16.0%, 경영관리직 11.6%, 일반작업직 8.0%, 전문자유직 4.6% 순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5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불교 23.2%, 기독교 18.4%, 천주교 6.6%순으로 나타났으며, 월수입은 200만원이하가 3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0만원이상 30.9%, 300만원 미만 25.8%, 100만원 미만 10.4% 순이었다.

3.2 음주에 대한 인식

연구 대상자의 음주인식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표 2>.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평균 점수는 2.93, 음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3.18로 음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항목 중 ‘술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필수적이다’의 평균점수(3.2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술을 마시면 진실해진다’(3.17), ‘술은 사회적으로 유익하다’(3.16), ‘술을 잘 마시면 멋지게 보인다’(2.13)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술은 사회적으로 유익하다’ 항목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84명, 37.1%로 가장 많았으며 ‘술을 마시면 진실해진다’에 대해서는 177명, 35.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술은 필수적이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그렇지 않다’에 대한 응답결과 178명(35.7%)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고 응답한 대상자는 55.2%로 나타났다. ‘술을 마시면 멋지게 보인다’에 대해서는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218명, 44.4%). 음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항목 중 ‘여자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의 평균 점수가 3.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많다’의 평균점수가 3.27,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신다’가 3.23, ‘술 하면 유흥과 환락이 연상된다’ 2.95 순이었다. 또한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신다’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184명(37.4%)으로 가장 많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많다’에 대해서는 173명(35.1%)이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술 하면 유흥과 환락이 연상된다’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는 ‘그렇다’라고 159명(32.1%)이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여자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168명

(33.9%)으로 가장 많았다.

3.3 음주행태

음주행태는 음주경험, 음주빈도, 평소 음주량, 개인이 경험한 음주의 빈도와 양, 알코올의존증상, 음주로 인한 문제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음주행태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3>. 음주경험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적이 있다”(현재 음주자)가 388명(79.7%)로 가장 많았고,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적이 없다’(비음주자)는 64(13.1%), 1년간 술을 마신 적은 없지만 그 이전에는 마셨다’(과거 음주자)가 35명(7.2)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음주빈도는 음주경험이 있는 조사 대상자 중 ‘월 2-4회’가 3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주 2-3회’가 27.4%, ‘월 1회미만’이 17.1%, ‘주 4회 이상’이 15.0%, 전혀 마시지 않는다’ 2.3% 순이었다.

3.4 문제음주정도 및 특성

CAGE와 AUDIT를 통해 문제음주자 및 알코올의존 정도 및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전체 대상자 중 CAGE를 통해 선별된 알코올의존자(4개 문항 중 2개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하면 알코올 의존으로 규정)의 비율은 96명(25.1%)이었고, AUDIT를 통해 선별된 문제성 음주자(8점 이상)의 비율은 241명(64.8%)으로 나타났다.

CAGE에 ‘알코올의존자’로 선별된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30.7%, 여성은 12.1%이며, 직업별로는 전문자유직이 4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판매서비스직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영관리직 39.4%, 사무기술직 35.3%, 기능숙련공 30.9%, 순이었다.

AUDIT에 ‘문제성 음주자’로 선별된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은 77.0%, 여성은 36.0%이었고, 직업별로는 일반 작업직 89.7%, 자영업 74.2%, 경영관리직 67.4%, 사무기술직 63.4%, 전문자유직 57.1%, 판매서비스직 52.6% 순이었다.

3.5 음주로 인한 질병

대상자의 음주로 인한 질병은 위장계 질환이 31.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간 질환 27.1%, 신경계 질환 5.3%, 근육계 질환 1.5% 순이었다. 직업

별 음주로 인한 질병은 위장계 질환은 자영업 47.7%, 전문자유직 35.7%, 판매서비스 34.8%순으로 나타났고, 간 질환은 경영관리직 37.5%, 사무기술직 36.5%, 자영업 25% 순이었으며 신경계 질환은 사무기술직이 10.6%이고, 전문자유직 7.1% 순으로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

4. 논의

음주로 인한 질병은 간 질환 발병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위장계 질환의 발병율이 높았는데 이는 양승희(2008)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음주문제에 따른 간과 위장 등의 신체 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활동과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체 근로자를 위한 절주 및 음주예방사업은 근로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인 사업으로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결근일수와 산업재해가 줄게 되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되므로써 산업체의 감독자나 고용주, 근로자 모두에게 절주나 음주감소의 효과와 더불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Pelletier, 2001). 따라서 산업장 간호사는 근로자들의 음주예방 및 절주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교육이나 홍보, 상담을 통해 직장 내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1.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음주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인식의 평균은 2.93, 부정적 인식의 평균은 3.18로 나타났다.
2. 음주행태에서 음주경험여부는 현재음주자가 79.7%로 가장 많았고, 비음주자 13.1%, 과거음주자 7.2%로 나타났다. 음주빈도는 음주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월 2-4회 마시는 경우’가 38.2%로 가장 많았고, 평소 음주량은 ‘소주 10잔 이상’이 34.6%로 많았으며 ‘소주 3잔 이상’인 경우가 전체 대상자의 92.2%를 차지하였다. 또한 개인이 경험하는 음주의 빈도와 양은 술을 마실 때 ‘소주 1병 또는 맥주 4병 이상’의 음주를 ‘주 1회’가 3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음주를 멈출 수 없는 경험’은 ‘전혀 없다’가 5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데 반

해 ‘월 1회’ 이상이 24.1%로 나타났다. 알코올의 의존증상은 ‘술 때문에 평소 할 수 있는 일을 실패한 경험’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에서 ‘월 1회’ 이상이 18.4%로 나타났으며, ‘해장술의 경험’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에서 ‘월 1회’ 이상이 13.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 후 죄책감이나 후회경험은 ‘전혀 없다’가 66.1%로 가장 높았고, ‘전날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 경험’이 자주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의 비율이 20.5 %로 나타났고, 음주로 인한 문제는 ‘음주로 인한 자해, 타해, 상해 경험’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에서 ‘전혀 없다’가 83.7%, ‘있지만 지난 1년간 없었다’가 10.6%, ‘지난 1년간 있었다’가 5.7%로 나타났다. ‘주변에서 술 끊기를 권유한 경험’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에서 ‘전혀 없다’가 74.4%, ‘있지만 지난 1년간 없었다’와 ‘지난 1년간 있었다’가 각각 11.9%, 13.7%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문제음주 정도 및 특성은 전체 대상자 중 CAGE를 통해 선별된 알코올의존자(4개 문항 중 2개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하면 알코올 의존으로 규정)의 비율이 96명(25.1%)이었고, AUDIT를 통해 선별된 문제성 음주자(8점 이상)의 비율은 241명(64.8%)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음주로 인한 질병은 위장계 질환이 31.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간 질환 27.1%, 신경계 질환 5.3%, 근육계 질환 1.5% 순이었고, 직업별로는 사무기술직의 음주로 인한 질병 발병율이 32.4%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특히 간 질환이 4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위장계 질환이 27.1%로 높게 나타났다.
5. 대상자가 한 달 간 술값으로 지출한 평균 총 금액은 13만원이었으며 직업별로는 사무기술직이 19만 9천원으로 술 값 지출액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자영업 14만 5천원, 경영관리직 14만 2천원, 일반작업직 13만 6천원, 판매서비스직과 전문자유직 10만 4천원 순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농어촌지역 직장인의 음주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산업체 중심의 절주사업이 필요하며 농어촌 직장인 중 문제음주자 및 알코올 의존자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한 알코올중독 예방 교육 및 진단 치료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1] 김금이, “지역 주민의 음주 및 흡연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1), 39-56, 2006.
- [2] 김문두, “제주도 농촌지역 주민들의 음주습관과 우울증상 및 스트레스”, 한국신경정신의학, 43(1), 29-39, 2004.
- [3] 김상대, 송석훈, 이상진, 하태영, Kuan-Pin Lin, “한국, 독일, 미국 기업의 직장인 음주 대책 비교연구(1)”, 경상논집, 한독경상학회, 26, 1-26, 2002.
- [4] 김영임, 김현숙, 김숙영, 최은숙, “사업장 절주 프로그램 분석 - 사업장 건강증진운동 우수사례 집을 중심으로”. 산업간호학회지 17(1), 96-105, 2008.
- [5] 김통원, “도시직장인의 음주 및 음주운전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가족복지학, 7, 35-57, 2001.
- [6] 권구영, “직장인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지, 57(2), 93-118, 2005.
- [7] 진기남, 한동우, “직장인의 음주와 삶의 질”. 집문당, 1998.